

# 칩칩 쌓인 작품들의 언덕

## 독일문학의 맛에 매료된 세월

김주연

숙명여대 교수 · 독일학

젓빛 하늘과 암울한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알 수 없는 저 먼곳을 향한 아득한 그리움, 환상인 듯 아닌 듯 떠오르는 한 꽃송이의 슬픔, 스산한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라는 이름 아래 껴안겨지는 삶의 표상인 줄을 나는 정말 잘 몰랐었다.

다만 전화(戰禍)가 휩쓸고간 서울거리, 영국군이 주둔해 있는 중학교 철조망 옆길을 지나면서 소년의 가슴은 허공처럼 비어 있었고, 세상은 온통 어둠 뿐이었기에 알 수 없는 동경을 붙들고 겨우겨우 자신을 지탱했던 기억만이 아스라히 떠오른다.

무분별한 독서가 빈 가슴을 채워주었으니 사춘기 시절의 정신적 패배가 낭만주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어떤 정서일 수 있다는 것은 훨씬 뒤 — 아마도 대학원 시절쯤 되지 않았을까 — 에셔야 터득했다. 그런 가운데 씌어진 나의 석사학위 논문은 20세기 표현주의 시인 고트프리트 베에 관한 것이었다.

68년의 일인데, 사실 베의 이름조차 들어본 지 몇 년 안된 상태에서 논문은 씌어졌다. 은사인 강두식 교수님의 강의와 어떤 글에 촉발된 것이 나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허무와 절망의 시대에 시를 통해 다시 일어난 강인한 정신에 나는 매료되었던 것 같다.

### 허무와 절망 극복한 강인한 시정신

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은 이렇듯 원래는 베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독일 낭만주의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서서히 넓어져갔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추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해보면 그 계기는 사뭇 작은 곳에 있었다.

72년인가, 73년인가 겨울로 기억되는데, 나는 작은 밥상을 끼고 앉아 열심히 파지를 내고 있었다. 내복 바람으로 앉아서 열을 내고 있었던 원고는 노발리스(Novalis)의 장편소설 《하인리히 폰 오프터딩겐 Heinrich von Ofterdingen》의 번역이었는데, 꼬박 일주일을 매달린 끝에 8백여매에 달하는 원고를 탈고했다.

우리말로는 《파란꽃》이라는 제목을 달고

샘터사에서 처음에 출판했는데(나중에 문예출판사로 책이 옮겨갔으며, 조금 뒤 이유영 교수가 《푸른꽃》이라는 제목으로 또 번역해낸 바 있다), 이것이 한 전기가 되어 나는 낭만주의에 눈뜨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낭만주의는 독일정신의 원류였으며 독일문학의 본질이었었는데, 나의 개안은 그리 빠른 편이 못되었던 것 같다.

바라건대 언젠가는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독일비평사 한권쯤 내 손으로 썼으면 한다. 이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예감과 통찰력에 나 자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언젠가 이들 수준에 이를 것인지 아득한 동경에 빠진다.

30대 중반부터 나는 낭만주의와 그 핵심작가라고 할 수 있는 노발리스 연구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일문학의 진짜 정수가 무엇인지 어렵פות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었다.

낭만주의라 불리는 18세기 후반의 문학사조는 사실상 이 시기만의 특정한 현상이 아닌 독일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며, 그 끝에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뿌리가 있다는 사실도 멀리 바라보았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독일 정신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서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 즉 희랍 신비주의와 기독교 원형이 나타났다. 이때부터가 독일문학에 대한 나의 본격적인 연구시기라고 사실상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의 열기, 깊이와는 달리 나는 나의 지식이 너무 천박하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망연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명색 서양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은 나를 황당하게 하였다. 독일문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서양문학은 기독교와의 싸움, 그 토착화, 그로부터의 이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기독교를 모르고 있었으니 모든 연구는 불구의 연구였던 것이다. 자연히 나는 기독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비로소 독일문학은 그 원죄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와 더불어 제 본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었다.

노발리스와 휠덜린을 포함한 서양작가 8명을 문학적 견지와 신학적 견지에서 분석한 《문학과 종교 Dichtung und Religion》(한스 릭 · 발터 엥스 공저)는 이 과정에서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저서여서 나는 오랜 고생 끝에 이 책을 최근 우리말로 번역해내기까지 하였다.

### 나의 옛것과 한국의 새것

독일문학도로서 나의 관심은 또한 괴테와 문학비평 일반을 향해서도 동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나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문학뿐 아니라 한국문학에 관해서도 이는 체하는 처지에 있다. 문학평론가 행세를 30여년 해왔더니, 어떤 자리에서는 민망하게도(사실은 슬프게도) 원로 비슷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원로라니! 나는 아직 머리칼도 그리 희지 않을 뿐더러 책읽고 글쓰는 일을 놓아본 일이 없다. 여전히 나는 현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현장에 있는 셈인데, 그러려니 한국문학에 관한 나의 흥미는 항상 '현재의 것'을 향한다. 따라서 한국문학 독서는 독일문학에서의 그것과 달리 언제나 요즘의 작품들이다. 나는 한국문학자나 한국문학사가가 아니며, 다만 평론가일 따름이므로 한국문학에 관한 한, 나의 흥미도 관심도 독서도 저술도 현재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나 독일문학을 향한 사정과는 조금 다르다. 이따금 나는 오늘의 독일문학 — 이즈음 유명한 독일소설가나 시인, 혹은 경향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때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개 묻는 이의 표정이 의아해진다. 그것도 모르느냐는 것일 터인데, 나로서는 그것까지 알 겨를이 없다.

한국문학 평론가라는 자리와는 달리

소위 독일문학자이며 그런 한에 있어서 독일문학의 본질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나 스스로 달려가고 싶다. 그리하여 독일문학은 옛것, 한국문학은 새것에 관한 것으로 나의 호기심이나 지식은 이원화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서로 잘 돕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절묘한 조화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걸러서 이즈음의 내것에 써먹는 맛이라고나 할까. 여기서 괴테는 거대한 나의 스승이며, 독일문학비평사에 나타나고 있는 술한 이론가들은 선배이며 동료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나의 이른바 학문적 일상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괴테야말로 낭만주의적 정열에서 그의 문학을 일으켜 《파우스트》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독일정신의 발견과 그 바람직한스러운 극복을 위해 온 몸을 바친 거인으로서 나를 위촉시키고, 나를 고무시킨다. 괴테 없는 독일문학이나 독일은 오늘날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나는 그에 대해 고작 몇편의 논문들과 한권의 번역시집을 갖고 있을 뿐이니 참으로 초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파우스트》의 기독교적 성격 연구)라는 논문에서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런 측면에서 조망을 가한 드문 연구현황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낭만주의는 그 정신의 원류로서 독일정신의 자유와 무한한 관념의 비상을 가능케 한 힘이었으나, 다른 한편 신비적 경향 때문에 늘 새로운 극복이 모색되어온 학문적 과제였다.

괴테는 그 극복을 《파우스트》를 통해 기독교정신을 갖고 내다보았으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통합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나의 괴테 연구는 여전히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지만 낭만주의와 그 극복이라는 관점에서의 가설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 낭만주의의 극복

독일문학비평은 일찍이 내게 — 아마도